

“위법행위 근절 약속해요”

전북도, 논란된 대기측정 대형 종합대책으로 돌파구 마련 시료채취기록부에 상호간 서명해 미측정·허위측정 방지

전북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 보강과 강도 높은 업체 관리 등을 통한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8일 전북도 환경녹지국은 최근 감사원에 의해 지적된 대기오염 측정 관련 위반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5개 분야 8개 핵심사업을 선정해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행정인력과 측정장비 등을 대폭 보강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전라북도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 규정'을 대폭 손질해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하면서, 위반업체 명단 공개, 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그간 배출업체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시 현장 동행은 하지 않고, 다른 업무추진 등의 사유로 측정대행업체에 위탁한 결과, 측정대행업체는 오염물질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지도 않았으며, 측정을 전혀 하지 않고도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자주 발생했다.

측정업체에서는 업체별 기술인력, 측정장비 등 측정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자가 수수료로 배출업체에 일괄해 오염물질 항목별 적정 시료채취시간을 미준수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의 근절을 위해 측정업체의 시료채취 과정에서 작성하는 시료채취기록부에 상호간 출입시간 기재 후 각각 서명하고, 미측정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 상호간의 조작 등 허

위측정을 묵인했다는 근거 자료로 활용에 공동책임을 부여하도록 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29개 항목의 시료채취 최소 소요시간을 전문기관인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조해 시료채취 최소 소요시간을 제작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시료채취기록부 등 측정대행 실적 관련 자료를 매분기별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료채취장비 및 실험실 분석장비 등의 신규 구입을 위해 2020년 본 예산에 11억5600만원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간 대기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 간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간과했던 시간을 심각하게 고민해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수립된 개선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고,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쳐 다시는 도민들께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8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전북 서민경제 희망불세 살리기' 빛 탐감 행사에 송하진 도지사, 송성환 도의장, 김윤식 신흥중앙회장,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광형 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풍선을 맞춰로 퍼트리며 전북도민 1539명의 318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탐감하는 희망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절망의 빛 태워, 희망의 빛 비추자!

전북도, 빛 탐감 행사 개최... 1539명의 318억원 상당 부실채권 탐감

전북도가 도내 금융권과 손잡고 장 기재부로 절망의 빛에 빠져있는 도민 1,539명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했다.

도는 8일 전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 신흥중앙회 전북지부, 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전북도가 후원하는 '2019 전북 서민경제 희망불세 살리기' 빛 탐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경위위원장, 김윤식 신흥중앙회장,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광형 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장,

김종원 전북은행 수석부행장,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고선영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 김미선 주부리은행 상임이사 등 지역금융기관 및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해 전북도민 1539명의 318억원(전북신용보증재단 631명 139억, 신흥 전북지부 908명 179억) 상당 부실채권을 탐감했다.

이번 행사는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모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심하고, 연체자들은 비인간적인 추심에 시달리며, 연체된 채권 역시 대부분에 할애했다고 있는 실정에서 빛으

로 고통 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구제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일례로, 자살예방상담소에 근무하는 어느 실무자는 자살을 결장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채무독촉이라고 지목했고, 통계적으로도 전북 가계 부채 25조 중 56%인 14조가 고금리 금융권에 집중되어 있음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전북도는 일찍이 가계부채로 인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어려운 도민들의 채무감탕에 노력해왔다. 행안부 공모에 선정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3,400여건의 채무상당과 31억 원의 채무조정을 완료했고, 현재도 82억 원의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권익위,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무 청년 교통비 지원 확대

산업부에 군 복무기간 포함시켜 지원 연령 연장 권고 파견·하청업체 근로자도 적용... 36세까지 지원 대상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지원 연령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포함되지 않던 군 복무기간이 반영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 기준에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내 청년 파견근로자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산업부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여건

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만 15세~34세)를 대상으로 버스·지하철·택시·주유 등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이 사업의 대상 인원은 약 16만 명으로, 이중 남성이 12만 명으로 75%를 차지하는 등 주요 정책 수요자가 남성인 것으로 권익위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원제도와 달리 군 복무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불만이 제기 돼 왔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청년층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의 경우 지원 대상 연령은 같지만 군 복무기간 만

큼을 연장해주고 있다. 병역의무를 2년 마쳤다면 36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지원 대상을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한정해, 산업단지 내의 중소기업에 파견된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는 혜택에서 제외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권익위의 문제 인식이다.

이에 권익위는 청년교통비 지원 연령에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에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올해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의 청년교통비 지원연령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행안부, 무더위쉼터 확대 위한 특교세 35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5억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교세는 '무더위 쉼터' 사업에 주로 쓰인다.

무더위 쉼터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시원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냉방기가 설치돼 있는 체육관과

주민센터 등에 텐트를 설치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손마사지 등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도 연계 제공한다.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다.

지난해 서울 노원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고, 올해는 전국 774곳에서 확대 운

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행안부는 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일일 캠페인을 지속 실시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전국 지자체에서는 폭염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전북도 마을기업의 위상 전국으로 '뽐뽐'

원주 비봉우리공동부영농조합, 전국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전북도는 행안부에서 개최한 2019년 전국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 5천만 원을 확보했다.

도에 따르면 2019년 제2회 사회적경제 제박람회 기간 중 지난 6일 대전컨벤션센터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된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원주군 비봉우리공동부영농조합이 참가해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도에서 추천된 19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11개의 우수 마을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최우수 1개, 우수 3개, 장려 4개의 마을기업 최우수위를 결정했다. 2011년부터 해마다 선정된 마을기업은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다.

그간 전북도에서는 최우수상 4번, 우수상 4번, 장려 1번을 수상함으로써 9년 연속 행정안전부 우수마을기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냄으로써 전북도 마을기업의 위상을 높였다.

원주 비봉우리공동부영농조합은 2013년도에 공동체성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2014년도에 2차년도 사업으로 재지정 받았으며, 2018년에는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전라북도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지원을 통해 사업성, 공동체성을 강화하여 우수마을기업으로서의 기반을 다져, 결국 올해 전국 우수마을기업 우수상까지 수상하게 되었다.

또한, 올해에는 10명의 지역주민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3억원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주민과 함께, 지역을 주도하는 마을기업'의 모토로 안정적인 일자리 문제 등 농촌지역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경쟁력을 가진 마을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지속적인 판로개척과 마케팅 지원, 경영 컨설팅과 맞춤형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도내 모든 마을기업이 경영능력과 지역 공동체성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우수마을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장수군 공고 제2019-707호

장수 군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안) 주민재열람·공고

장수 군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해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재열람·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 의견청취 제공람 사유
- 장수 군관리계획(도로)결정(안) 조건부 심의사항에 따른 도로 변경

구분	도로종류	도로명	폭원	도로종류	변경	폭원	비고
1	소도	1-16호선	10m	중도	3-3	12m	
2	소도	2-66호선	8m	중도	3-4	12m	
3	소도	3-40호선	6m				

2. 장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변경)조서·장계 도시지역

구분	종류	번호	폭원(m)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소결정폭	비고
신설	중도	3	12	국도	82	소(소) 3-10호선	장계(장) 300호선	일반도로			
신설	중도	3	4	국도	122	중(중) 2-5호선	중(중) 3-3호선	일반도로			

②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도3-3호선	○ 노선신설 · 폭원: 12m, 연장: 82m	○ 장계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기반시설 도로 신설
-	중도3-4호선	○ 노선신설 · 폭원: 12m, 연장: 122m	○ 장계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기반시설 도로 신설

3. 주민공람기간
- 공람기간: 신문게재 익일부터 14일간

4. 주민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5. 관게도시: 불임생택(공람장소 비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063-350-25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9일 장수군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